



양궁 기보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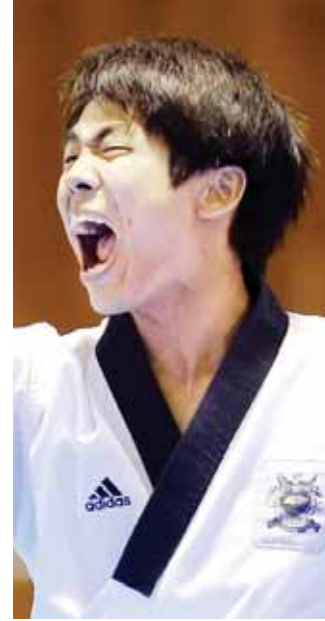
펜싱 송중훈



골프 이정은



육상 김국영



태권도 배종범



유도 김성연

# 혼신 다한 경기에 국민들은 즐거웠고

## 한국 종합우승 주역 선수들

고향에서의 축제를 빛낸 자랑스러운 얼굴들이 다.  
12일간의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열전은 한국의 사상 첫 종합 우승으로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거침없던 질주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선전이 있었다.  
두 명의 2관왕이 탄생했다. '신공' 기보배(27·광주광역시청)가 양궁 고향인 광주에서 2관왕을 명증시켰다. 양궁 리커브 혼성전 금메달을 딴 기보배는 광주여대 후배 최미선과 개인전 우승을 다룬

## 양궁 기보배·골프 이정은 2관왕

### 김국영 육상 100m 한국 신기록

끝에 2관왕이 됐다. 예선전에서 686점을 쏘며 세계기록을 작성한 그는 최미선·강재영과 함께 한 단체전에서도 세계신기록을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다.  
골프의 이정은(19·한국체대)도 부모님이 지켜 보시는 가운데 두 차례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프로 무대를 접수한 태극 남자들의 힘은 아

마추어 무대에서도 이어졌다. 이정은 일본의 추격을 따돌리고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함께 목에 걸었다.  
'순천의 딸' 김성연(24·광주도시철도공사)은 유도 여자 70kg급 결승에서 일본의 오사나이 카즈키를 유효승으로 꺾고 태극기를 휘날렸다. 김성연의 금메달은 종합우승의 기반이 됐다. 한국은 유도의 선전에 힘입어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신바람 질주를 했다.  
펜싱 송중훈(22·한국체대)은 금메달 러쉬의 시작점이었다. 송중훈은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 결승전에서 러시아의 드미트리 다닐렌코를 15-12로

제압하면서 지역 출신 첫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2개 대회 연속 2관왕의 꿈은 무산됐지만 이용대(27·삼성전기)는 배드민턴 단체전 금메달로 고향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태권도의 배종범(19·조선대)은 조선대체육관에서 열린 광주태권도 남자 품새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며 모교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메달은 얻지 못했지만 김국영(24·광주광역시청)은 육상 남자 100m 준결승 경기에서 10초16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2010년 자신이 세운 한국 신기록 10초23을 갈아치웠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 '경쟁 아닌 화합정신' MVP 없는 U대회

"MVP가 누구죠?" "손연재·김국영·기보배?"  
답은 'NO'다.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특징은 국가와 MVP가 없다는 것이다. 경쟁이 아닌 화합의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별도의 MVP를 선정하지 않는다. 만약 MVP 제도가 있었다면 금메달 3, 은메달 2개를 수확했던 손연재, 세계신기록을 갈아치운 기보배, 최다관왕인 4관왕에 오른 브리랜드 새너 등이 유력한 후보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는 없다.  
또 다른 특징은 금메달을 따면 국기는 걸데 국가는 틀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찬가가 울린다.  
'가우데아무스 이기투르(Gaudeamus Igitur)'는 중세부터 유럽의 대학에서 축제나 행사 때 불렀던 학생들의 노래로, '즐거자. 즐거워하자'라는 뜻이 담겨 있다.  
광주U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국가 연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합을 추구하는 U대회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MVP를 선정하지 않는다"며 "대신 모든 참가자들에게 참가 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 스승 뒷바라지에 선수들은 꿈 이뤘다

## 한국 종합우승 주역 감독들

'10초16, 한국신' 김국영, '686점 세계신' 기보배, '종합1위 시동' 김성연, '광주 첫 금' 송중훈... 이들 뒤에 심재용·박채순·최원·신권하가 있다. 광주U대회 스타 선수를 길러낸 스승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정(多情)'이다. 또 '자신보다 선수를 더 아낀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수들도 믿고 따른다. 선수들은 "나를 너무 잘 알아, '팁' 분위기가 좋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랜동안 손발을 맞춘 까닭에 맞춤형 지도로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줘 기량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국영 키워낸 심재용=100m를 10초16에 주파한 김국영. 자신이 보유한 한국기록을 5년만에 다시 갈아치웠고, 한국 단거리 사상 최초로 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김국영(광주시청)의 한국신기록 배경에는 심재용 감독이 있다. 광주U대회에서 심 감독의 작전은 빛이 났다. 한국신기록을 목표로 막판 스피드 유지 훈련과 100m에만 집중한 것이다. 심 감독은 "단거리의 약점은 골인 직전 20m가량 남겨두고 스피드가 떨어진다"는 것

## 육상 심재용·양궁 박채순 감독 등

### 맞춤형 지도로 신기록 달성 도와

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국영이를 200m와 400m 등 중거리 선수와 훈련을 함께하며 경쟁을 붙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국영이는 200m 한국기록도 세울 수 있었다"며 "하지만 모든 에너지 순간 쏟아내는 단거리의 특성상 하루에 100m와 200m를 동시에 뛰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오전 200m 경기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보배 가다들은 박채순="어제 밤 꿈에 감독님이 나타났어요." 지난 4일 세계신기록을 갈아치운 기보배(광주시청)는 사대를 벗어나면서 박채순 감독에게 꿈 얘기를 건넬며 환하게 웃었다. 박 감독은 "그런게 기록을 깼지~"라고 화답했다. 격의 없는 사제간의 대화였다.  
박 감독은 기보배를 이름 그대로 '한국 양궁의 보배'라고 칭찬했다. 특히 긍정적 마인드와 쾌활한 성격을 기보배의 강점으로 꼽았다. 실제 기보배는 이번 대회에서 '슛오프의 여왕'으로 등극했



다. 준결승과 결승 모두 '슛오프 역전승'으로 마무리하며 금메달을 안았다.  
◇김성연 서포터즈 최원="이 금메달은 감독님 것이예요." 한국이 종합 1위를 차지한 원동력은 유도였다. 당초 '3위 다름'을 예견했던 일본을 초반에 제압하면서 1위까지 치고 올라갔다는 평가다. 그 중심에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이 있었다. 김성연은 5일 일본의 오사나이를 꺾고 금메달을 확정짓자 최원 감독에게 달려가 안겼다.  
지난해 10월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오른쪽목을 수술했다. 수술 뒤 처음으로 나선 국제대회가 고향 열린 광주U대회다. 동계훈련을 못해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경기를 치러 힘겨웠다. 몸도 마음도 약해졌지만 최 감독에게 의지하며 금메달을 안았다.  
◇송중훈에게 칼 쥐어준 신권하="때리란 말야 때려 임마" 지난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 펜싱경기장 남자 사브르 결승전에서 열린 고향. 한국의 두 번째 금메달이자 광주 출신으로 첫 금빛 낭보를 전한 송중훈을 향한 신권하 전남공고 코치의 거침없는 가르침이었다. 송중훈은 경기를 마친 뒤 "선생님 목소리가 귓가를 때리더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 코치는 송중훈을 펜싱으로 이끈 스승이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 헝가리 수구 대회 마지막 금

헝가리 수구 대표팀이 마지막 272번째 금메달을 차지하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헝가리는 대회 14일 광주 영주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이탈리아와의 남자 수구 결승전에서 페널티 슈아웃(승부당지기) 끝에 7-6으로 승리를 하며 대회 마지막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은 앞서 열린 중국과의 순위 결정전에서 10-12로 패하며 13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한국은 마지막 금메달을 노렸던 여자 핸드볼과 남자 축구에서 유럽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리듬체조 사상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손연재의 활약으로 막판 스피트를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52명의 선수단을 투입한 한국은 금 47개, 은 32개, 동 29개를 획득하며 사상 첫 종합우승으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에 가장 많은 선수단을 파견했던 러시아(928명)는 금 34개, 은 39개, 동 49개로 한국에 이어 종합 2위에 올랐다.  
3위는 금 34개, 은 22개, 동 16개의 성적을 낸 중국이 차지했다.  
/특별취재단=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남북 분단 7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남은 북을 기다린다

우리는 만나야 하니까...

지난 3일, 광주 유니버시아드 개회식이 열리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 동쪽 하단 588석은 2시간 동안의 개막식이 끝날 때까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내내 비어 있었다. 그러나 기다리던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은 개회식이 끝날 때까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2시간 동안 「주인없는 빈 의자」만 쓸쓸히 개회식 행사를 지켜왔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다음 날인 4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빈 자리」는 "우리가(광주시민들)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리던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자리"라며, "함께 하고 싶었고 함께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분단 70년의 아픔을 넘어 통일의 노릇들을 놓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언젠가, 언젠까지나 북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약속했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는 14일 밤 열린 폐막식에서도, 개막식때 비워두어 「기다림」이 가득했던 북한 선수단 자리에서 광주시민들이 「우리는 (그래도) 만나야 한다」는 문구가 새겨진 옷을 입고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을 기다리는 「그리움」을 표현해 광주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북쪽에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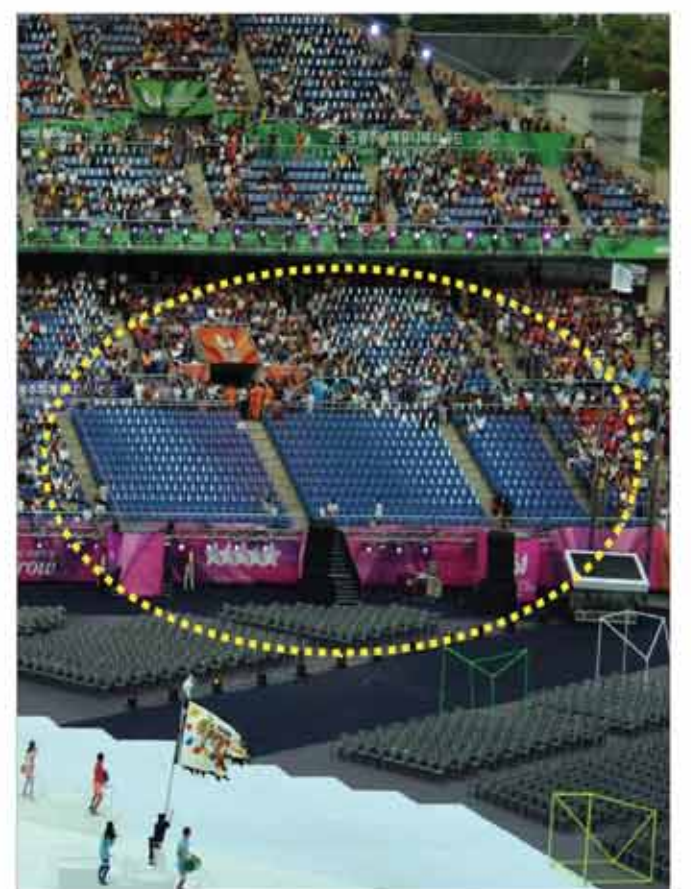
## 광주시민은 위대했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식으로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희생과 저항으로 세상을 바로 세웠습니다. 또 높은 시민의식으로 배려와 연대를 통해 143개국 지구인을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 그래서 광주시민은 장했습니다

광주환경공단은 언제까지라도 광주시민의 환경권을 굳건히 지키는 성실한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2015년 7월 15일  
광주환경공단 임직원 일동



7월 3일 개막식때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을 위해 비워둔 588석 사진제공 : 광주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